

2021. 1. 22. 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8차 교회대응지침

복음의 능력으로 전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종료하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조정 발표(적용기간 1.18~1.31)하였습니다. 전국교회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시는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교회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교회는 정규 예배(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교회학교예배 등)는 예배당 혹은 부속공간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10%, 또는 면적의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지역 외 14개 시도의 교회는 정규 예배(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교회학교예배 등)는 예배당 혹은 부속공간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20%, 또는 면적의 수용인원 20% 이내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예배실 혹은 건물 출입구에 동 시간대에 예배당 출입 가능 인원수를 게시하시기를 바랍니다.
4.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각종 선교회 소모임 및 교육, 숙박과 비숙박 포함) 및 식사를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5.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공용물품(정수기, 공용책자 등)의 제공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등 기존의 방역지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6. 교회의 재정(회계), 교회 관리 등 교회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2단계는 99명까지, 2.5단계는 49명까지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교회 시설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허용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I 최바울씨와 인터콥에 대한 제96회 총회(2011년) 결의 안내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경 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참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성명서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의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2.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최바울 선교사는 이의 개선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 교단은 '참여금지', 예장통합 교단은 '예의 주시, 참여자제', 기하성 교단은 '참여금지', 기성 교단은 '예의주시, 경계대상', 예장고신 교단은 '불건전 단체로 보고 참여금지', 예장합신 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통해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3.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상임회장회의(2021.1.12)의 결의로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

2021년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상임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신정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문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장 **박영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안성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윤석,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병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이상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